

교회 목표

신령한 예배
천국일꾼 양성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
이웃 사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왔느니라
마태복음 4:17

주간 중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마태복음 16:24

대한예수교 장로회 중헌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02-552-8200 © 2007 중헌교회

THE WEEKLY CHOONGHYUN

발행인: 김경선 편집인: 노영환 편집: 양재웅

제2차 청지기훈련 메시지

“서로 사랑하자”(요일 4:7~11)

1. 끝없는 사랑

1) 부정적인 표현을 살펴보자

① 사랑은 무기하는 것이 아니다. (잠 23:17) 오늘날 강단이나 회중 안에서 나타나는 가장 큰 죄는 시기와 질투다. (갈 5:26; 잠 14:30) ②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한다. (롬 12:3,10) 예수님은 자랑하지 아니하셨다. ③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한다. (마 18:4; 눅 22:26) 우리 모두가 교만한 죄인이다. (약 4:6; 잠 29:23) ④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한다. (골 1:10) 진정한 사랑은 부끄러울 것이 없다. 사랑이 감싸주며 사랑이 지배하기 때문이다. (살후 3:7) ⑤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지 아니한다. 소유에 대한 욕심이 없다. (고전 10:24) ⑥ 사랑은 성내지 아니한다. (약 1:19) 예수님은 쉽게 성내지 아니하셨다. (약 3:21; 요 10:20; 골 3:8) ⑦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한다. (마 5:39) 예수님의 사랑은 인간적인 계산과는 완전히 달랐다. (롬 12:17; 눅 23:34; 뱌전 3:9) ⑧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마 7:3) 사랑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속에서 잘 나타나 있다. (눅 13:34,35)

2) 이제 사랑의 적극적인 표현과 긍정적인 표현을 살펴보자

① 사랑은 오래 참는다. (마 18:21,22; 골 1:11) ② 사랑은 온유하다. (엡 4:32) 예수님은 친절하고 온유하셨다. (막 6:31) ③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엡 4:25)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있는가? (호 14:1,2) ④ 사랑은 모든 것을 참는다. 많은 군중들이 자신에 대하여 거짓으로 증거할 때 예수님은 모든 것을 참으셨다. (마 27:14) ⑤ 사랑은 모든 것을 믿는다. 이것은 “신빙성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의심하지 않는 것을 뜻한다. (눅 7:38,39; 마 26:13) ⑥ 사랑은 모든 것을 바른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계속되는 사랑을 주셨다. (마 12:20; 롬 15:4; 요일 3:3) ⑦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딘다. 모든 것을 견디는 사랑은 지난날 모든 것들을 통합하여 받게 되는 승리의 면류관과 같다. (히 12:2; 고전 4:12,13) ⑧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한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났지만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셨다. (요 13:1)

2. 친밀한 사랑

예수님은 우리를 아주 친밀하게 사랑하신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사랑을 표현할 때에 “나를 사랑하시라”고 하였다. (행 9:5; 딤후 1:13~16) 친밀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관계에서 치우침이 없는 공평하신 사랑이다. (요일 4:10) 우리는 “누구를 사랑할까?”를 선택한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 (요 13:1; 막 9:6,38) 예수님의 사역은 사랑으로 가득했다. (요 10:14)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셨다. 우리들은 어떠한가? 교회의 부흥을 막는 가장 큰 이유는 용서하지 않는 것이다. 아가페의 사랑은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부어주시는 조건 없는 사랑으로 절대로 차별이 없다.

3. 측량할 수 없는 사랑

예수님은 마지막 피 한 방울도 남기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쏟으셨다. (눅 2:7, 9:58, 23:53) 이 희생적인 사랑은 오직 주시기를 하는 사랑이다. (엡 5:25) 사랑의 본질은 주고 또 주는 것이다. (요 3:16) 진정으로 사랑하는 길은 모든 장벽을 허물어뜨리는 희생의 길이다. (요일 3:16) 예수님은 나를 위해 희생하셨고 이제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신다. 희생적인 사랑은 주는 것만이 아니라 또한 용서하는 것이다. (엡 4:31,32) 갈보리의 십자가에 달려 죽는 순간에도 예수님의 용서는 멈추지 않았다. (눅 22:34) 우리는 진심으로 용서하지 못하면서도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다.”라고 착각한다. 인간들에게 짓밟힐 때에 죄인들을 용서하신 예수님 사랑의 향기가 가득하길 원한다. (롬 5:5)

하나님은 “주님의 교회를 세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그리고 이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다. 이 주님의 음성에 믿음으로 순종하자. 지금도 우리 안에 내재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참 믿음의 삶을 살자. 서로 사랑하자! 아멘.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루되어 세워가는 주님의 교회

6월 15일 금요일 저녁, 중헌교회 예배당을 가득 채운 성도들은 사랑의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사랑의 복음을 들었습니다.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뿔과리”(고전 13:1)같은 외식적인 사랑이 아닌 십자가의 은총으로 풍성한 참 사랑을 심령에 가득 채웠습니다.

이제 십자가를 통하여 완전한 사랑의 본을 보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믿음의 순종은 모든 성도들로 하여금 원수조차도 사랑할 수 있도록 마음을 열어 줍니다. 입술을 열고 손을 내밀어 한 마음과 한 믿음을 가지고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합니다. 주님의 교회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여 서로 사랑하는 성도들을 통하여 세워집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Scattered Christians Established Churches

⁽¹⁾Saul was in hearty agreement with putting him to death. And on that day a great persecution began against the church in Jerusalem, and they were all scattered throughout the regions of Judea and Samaria, except the apostles. ⁽²⁾Some devout men buried Stephen, and made loud lamentation over him. ⁽³⁾But Saul began ravaging the church, entering house after house, and dragging off men and women, he would put them in prison.

⁽⁴⁾Therefore, those who had been scattered went about preaching the word. (Acts 8:1~4)

After the promised Holy Spirit came, God established the first church, and then scattered them abroad to make more churches. When these early Christians gathered together, they worshipped, and when scattered, they evangelized. How about you? When you come together with other believers, do you worship, sing, pray, and learn God's Word or do you argue, fight, and practice the world's way? What would you do if you were forced to flee your homeland? Would you try to save your own life and survive at any cost or would you evangelize? The early church members practiced their faith, and God blessed them. God values your worship and your evangelism.

The early Christian Church was scattered because of severe persecution. When they scattered, they did not get angry or agonize over their situation. Indeed, they could have easily groaned about many things, like losing their home, suffering physical abuse, and having a poor worldly future. All different kinds of persecutions and troubles came to them because of their belief in Jesus Christ. They gave all their money to His cause, helping poor people, and they gave all their love in return for hatred. Their leaders were imprisoned or martyred, yet they continued to sing, praise, and worship in the cities they escaped to. The whole world wondered about them! One of their chief adversaries, Saul, even became one of them. This was the man who helped kill Stephen, all the while thinking he was doing good, when in reality he was doing just the opposite, "Saul was in hearty agreement with putting him to death. And on that day a great persecution began against the church in Jerusalem, and they were all scattered throughout the regions of Judea and Samaria, except the apostles." (Acts 8:1) Jesus had told them, "but you will receive power when the Holy Spirit has come upon you; and you shall be My witnesses both in Jerusalem, and in all Judea and Samaria, and even to the remotest part of the earth." (Acts 1:8) Even scattered, they became witnesses. Their enthusiasm about the good news reached the poor people in Samaria. That whole city rejoiced. (Acts 8:8) How can anyone explain such wonders? Actually, only the Holy Spirit can explain how persecuted and scattered Christians could evangelize the best news all over the world.

The early Christian Church did not analyze or criticize their dispersion. They kept a positive attitude. When Christians or unbelievers give you a hard time, you complain, but the early church did not. Many of today's Christians would have tried diplomacy or devised some kind of political plan to handle the situation and avoid the problem. They would have criticized the

loss of life. Criticism cripples today's churches. It robs believers of their power. Too many church members think they are smarter than God, and use their own analytical thinking to resolve difficult matters. They recklessly criticize others, thinking they are doing something good, when in fact they are doing the exact opposite.

The early Christian Church did not have a political agenda because their goal was to preach the gospel only. They did not elect a special team to strike back at their opponents. Indeed, they changed the world one person at a time. They turned the world upside down one by one. They had no political power, no desire to march on Rome proclaiming their innocence. There was no rebellion against authority. There was no political message. Historically, all churches that had political motives, who exchanged the eternal for the temporal, faced terrible disaster. These political blunders still reflect on the church. Jesus clearly said, "... render to Caesar the things that are Caesar's; and to God the things that are God's." (Mt. 22:21) It is wrong and very dangerous to mix Christianity and politics. Jesus also clearly said, "My kingdom is not of this world. If My kingdom were of this world, then My servants would be fighting so that I would not be handed over to the Jews; but as it is, My kingdom is not of this realm." (Jn. 18:36) Sadly, many of today's churches deal in politics. I hope this church never practices such things. I hope that we only believe in Jesus and read the Bible.

When the early Christian Church scattered, they evangelized. Wherever they went, they preached the Word of God. The lost are everywhere, "for all have sinned and fall short of the glory of God." (Rom. 3:23) Wherever you go, you can preach. People need Jesus everywhere, "And there is salvation in no one else; for there is no other name under heaven that has been given among men by which we must be saved." (Acts 4:12) Today, Christians need to go where Jesus is not. They need to evangelize everywhere.

My dear friend, do you evangelize when you are not at home and scattered somewhere outside? Honestly, do you evangelize or do you agonize? Do you evangelize or do you criticize? Do you evangelize or do you politicize? Please, start evangelizing. Even though you may not face the same harsh persecutions as the early church members, how much easier is it then for you to spread the good news? How many souls did you reach for Christ this week? How many souls are you going to try and reach next week? When you come to church, come to worship and praise the Lord. When you leave the church, go and evangelize. This is what God wants from you. Amen. 🙏

흘어진 그리스도인들이 세운 교회들

- ① 사울이 그의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 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② 경건한 사람들이 스테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③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④ 그 흘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사도행전 8:1~4)



김성관 목사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임한 후 하나님께서는 초대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이후에 더 많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 그들을 각지로 흩으셨습니다. 초대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은 모이던 예배드리고 흠이지면 전도했습니다. 여러분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다른 신자들과 함께 모일 때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배움니까? 아니면 논쟁하고 다투는 세상적인 방법을 그대로 답습합니까? 여러분이라면 살던 곳에서 쫓겨날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목숨을 부지하고 살아남기 위해 안간힘을 쓰시겠습니까? 아니면 전도 하시겠습니까? 초대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믿음을 실천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축복했습니다. 이같이 하나님은 여러분의 예배와 전도를 귀히 보십니다.

박해로 흩어진 초대 교회의 그리스도인들

초대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은 심한 박해로 인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흩어질 때 분노하거나 처한 상황에 대해 비판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집을 잃고, 고통당하고, 미래가 암담한 상황에서 불평하자면 얼마든지 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그들에게 온갖 종류의 박해와 고통이 가해졌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가난한 자들을 도우며 예수님을 위해서 전 재산을 내놓았습니다. 그들은 중요를 사랑으로 값졌습니다. 그들의 지도자들은 투옥되거나 순교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몸을 피해 달아난 그곳에서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그런 그들을 보며 매우 놀랐습니다. 앞장서서 그들을 박해하던 사울조차도 변하여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는 세도반을 죽이는 일에 동참했던 자였습니다. 그는 줄곧 자신이 옳은 일을 행한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정반대였습니다. “사울이 그의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 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행 8:1)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행 1:8) 흩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중인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복음에 대한 그들의 열정이 사마리아에 있는 가난한 자들에게 이르렀고 사마리아상은 기쁨으로 즐거워했습니다.(행 8:8) 이 놀라운 일들을 어떻게 말로 다 설명할 수 있었습니까? 핍박당하고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온 세상에 최고의 소식을 전할 수 있었는지는 오직 성령만이 설명할 수 있습니다.

순전한 믿음을 가진 초대 교회의 그리스도인들

초대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이 흩어지게 된 것을 분석하거나 비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더욱 주님을 신앙했습니다.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나 믿지 않는 자들이 힘들게 하던 불평하기 마련인데 초대 교도인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이었다면 상황에 대처하고 문제를 회피하기 위해 여러 가지 술수를 쓰거나 전략적인 방법을 강구하려고 애를 썼을 것입니다. 그들은 아마 생명을 잃는 것을 비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같은 비판은 현대 교회를 무능력하게 만든 장본인입니다. 비판은 신자들을 무력하게 만듭니다.

매우 많은 교도인들이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똑똑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분석적인 사고를 발휘해 어려운 일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들은 옳은 일을 행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거리낌없이 다른 사람들을 비판합니다. 그러나 사실 그들은 전혀 정반대의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초대 교회의 그리스도인들

초대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정치적인 모습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오직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적을 물리치기 위해 전문적인 탐을 구성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들은 ‘한 번에 한 사람씩’ 전 세계를 변화시켰습니다. 그들은 한 사람씩 차례로 세상을 뒤엎어놓았습니다. 그들은 정치적인 권력도 없고 자신들의 결백을 주장하며 로마로 진출하려는 욕망도 없었습니다. 권위에 대한 대항도, 정치적인 주장도 없었습니다. 역사상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영원한 것을 일시적인 것과 맞바꿨던 모든 교회들은 무서운 결말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도 정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생각이 여전히 교회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라사대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마 22:21) 기독교와 정치를 혼합하는 것은 매우 잘못되고 위험한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우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요 18:36) 슬프게도 오늘날 많은 교회들은 교회를 정치적으로 이끌어가고자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는 결단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초대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은 흩어졌을 때 전도했습니다. 그들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잃어버린 양들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로 3:23) 여러분은 어디에서든지 전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꼭 필요하십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행 4:12) 신자들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로 가야 합니다. 모든 곳에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교향이 아닌 다른 낯선 곳으로 흩어지게 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직하게 고백해보십시오. 전도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비판에 져거나, 비판하거나, 정치적으로 해결하겠습니까? 이제, 믿음으로 전도를 시작하십시오. 우리는 초대 교회의 그리스도인들과 같이 심한 핍박을 받지 않습니다. 그 때에 비하면 복음을 전하는 일이 얼마나 더 쉬워졌습니까? 이번 주에 여러분은 몇 명의 영혼을 그리스도에게 인도했습니까? 다음 주에는 얼마나 많은 영혼을 인도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 오면 하나님을 찬양하며 진실로 예배를 드리십시오. 교회를 나서게 되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십시오. 이것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십니다. 아멘. ■

수요1부 예배 메시지 (2007. 6. 13.)

충성 (갈라디아서 5:22)



“꽃의 처를 생각하라”(눅 17:32)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 꽃은 아브라함과 함께 했던 믿음의 사람이었다. 그의 삶은 경건하였다. 특히 자신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던 아브라함은 그에게 큰 힘이였다. 그래서 꽃은 극적으로 소돔에서 구원을 받았다. 그러나 천사의 경고를 무시한 채 뒤를 돌아보았던 꽃의 처는 소금기둥이 되었다.(창 19:26) 소돔이 불의 심판을 받는 것은 이제 곧 우리에게 일할 마지막 때를 떠올리게 한다. 예수님은 인자가 올 때에도 그 같은 심판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다.(마 24장, 눅 9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꽃의 아내와 같이, 멸망할 세상을 뒤돌아보고 있지 않은가? 여전히 세상의 가치를 사랑하는 악한 모습이 곧 우리의 모습이다.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니라”(마 24:39) 예수님은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심자가와 부활, 재림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신다. 그런데 고작 우리는 자신의 공로만을 기억하고 있지 않은가? 이 악한 모습을 진심으로 회개하자.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께 합당치 아니하니라”(눅 9:62) 더 이상 뒤돌아보지 말고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에 전적으로 순종하자. 성령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이다. 성령의 열매로 가득한 삶이 되길 원한다.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우리를 향해 예수님은 “예비하는 충성된 종이 되라.”고 말씀하신다.(마 24:44,45)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의 열매에 이어 성령의 열매인 충성의 열매를 사모하자.

그리스도의 충고 충성의 열매를 맺는 삶을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셨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마 18:3,4) 성령의 열매인 충성은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맺을 수 없다. 어린아이처럼 단순히 주님께 순종할 때 충성의 열매는 맺힌다. 성령의 은사를 자랑하지 말자. 그 은사가 천국을 향해 가는 우리의 움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자신이 가진 그 무엇으로 열매를 맺으려 하지 말고 어린아이처럼 자신을 낮추며 충성하자. 단순한 믿음으로 충성할 때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다. 독자 이삭을 요구하시는 하나님께 절대순종을 하였던 아브라함처럼 되자.(창 22:2,3) 오직 어린이와 같은 단순한 믿음을 요구하시는 그리스도의 충고에 순종할 때 충성의 열매는 맺힌다.

신자들의 모든 삶에 도전으로 이루어진다 충성의 열매는 어린아이 같은 단순한 믿음으로 순종하는 신자들의 삶을 통하여 맺힌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보이는 것, 나타낸 것”(히 11:3)을 중시하고 있지 않은가? 아직도 자신이 세운 치밀한 계획을 더 신뢰하며 자신의 충성도를 자랑하고 있는가? 우리에게 행하신 은총의 역사를 성령을 통해서 깨닫자. 세상이 증거하는 것에 현혹당하지 말고 말씀이 증거하는 믿음의 선진들을 보자.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은 눈에 보이는 아무 증거가 없었지만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 충성하였다.(히 11:4~8) 이들에게는 단순한 믿음뿐이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갯새마네 동산까지. 심판할 자리까지.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찬 360장) 원래 우리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었다. 이미 죽은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보혈의 은총이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찬 202장)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이 새 피조물된 우리 삶의 처음과 끝이다. 따라서 보혈에 기초한 믿음의 것이 있을 때 우리는 세상과 싸워 승리할 수 없다.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신 뒤 남아있던 제자들을 찾았을 한 아버지가 있었다. 그는 귀신들린 아들이 고침받기 원했다. 그런데 아홉 명이나 되는 제자들은 각각의 방법으로 소년을 치유하려 했었지만 할 수 없었다. 제자들이 누구인가? 예수님과 3년간이나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은 물론이고 병고집, 죽은 자의 부활까지 경험했던 사람들이 아닌가? 이제 제자들은 충분히 예수님처럼 할 수 있을거라 생각했지만 할 수 없었다. 무엇이 문제였는가? 믿음이였다.(막 9:23) 자신을 앞에 놓인 문제만 보았을 뿐 제자들은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았다.(막 9:29) 우리는 자신의 힘으로 무언가를 해서 하나님께 충성할 수 없다. 하나님은 단순한 믿음으로 간구하는 신자들을 원하신다.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신자들의 삶을 통해서 충성의 열매는 맺힌다.

신자들의 삶이 다른 것을 증명한다 충성의 열매는 믿음으로 행하는 신자들의 삶을 통해서 드러난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감정을 완전히 포기해야 한다. 자신에게 “자신”이 남아 있으면 안 된다. 그리스도만이 계시어야 한다. 말만 하지 말고 단순한 믿음을 실천하자. “행할 만 한 믿음을 내게 보리라”(약 2:18) 우리의 행함에는 십자가만 있어야 한다. “영광일세, 내가 누릴 영광일세, 은혜로 주 얼굴 뵈옵나니.”(찬 289

장) 보혈이 모든 것을 주장해야 한다. 성령이 주장하시는 믿음으로 순종해야 한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찬 217장) 어린아이 같은 순진한 믿음으로 충성하자. 주님의 말씀과 자신의 의지, 경험을 섞어 복잡하게 만들지 말고 단순히 믿자. “저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고후 1:19) 십자가만을 보며 달려갈 때 참 기쁨과 평안이 넘친다.(찬 470장) 우리의 삶이 증명해야 할 것은 자신의 탁월한 능력과 업적이 아니다. 내가 아닌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이 증명되어야 한다. 이것은 자신이 증명하는 것이 아닌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하는 일이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골 10:17) 말씀대로 살기 힘들다고 불평하지 말고 믿음을 실천하게 하는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자.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의 음성들 들어야만 영원의 길을 향해 갈 수 있다. 진실로 주님을 찬양하며 법사에 감사함으로써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다.(엡 5:19,20) 산상수훈(마 5~7장)의 결론이 무엇인가? 말씀 위에 믿음의 집을 세우는 것이다.(마 7:25) 그리스도의 말씀에 단순한 믿음으로 순종하여 행할 때 충성의 열매는 맺힌다. “잘 짓고 잘 짓세. 만세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찬 379장) 아멘.

십자가의 사랑으로 영혼을 회복시키는 6교구

“사랑하는 자들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요일 4:7)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과 교회가 사랑을 외치며 특별한 행사를 기획하지만 아가페 사랑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이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성전 문을 닫고 우리모두를 죽게 하는 악행일 뿐입니다. 성령의 첫 열매는 사랑이며 우리 모두를 살리는 은총의 원동력입니다.

6교구는 십자가 사랑의 실천을 위하여 송과구의 (잠실동, 삼전동, 석촌동, 가락동, 문정동, 장지동, 거여동) 7개 지역 22개 구역으로 구분하여 81명의 일꾼들이 317세대 733명의 교구 가족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며 하나되어 십자가의 길을 따르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역장을 중심으로 부지영장, 구역장이 한 팀이 되어 각 가정의 신앙을 점검하고 자녀들의 교회학교 출석을 확인하며 작은 목자로서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6교구는 “내가 이 반석위에 내 회회를 세우리니”(마 16:18)라는 천령교회의 아름다운 2007년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시는 참된 소명을 회복하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되새겨 가는 이 시대와 교회 가운데 십자가와 부활의 기쁜 소식을 열방의 영혼들에게 증거하기 위해 교회의 5대 목표를 토대로 구체적 방향을 계획하여 순종하고 있습니다.

[신령한 예배]를 위해서 예배 참석의 목적을 분명히 알도록 합니다. 주님을 예배함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과 사랑을 받아 기쁨으로 돌아가서 부단한 회개와 겸손한 자기반성으로 배운 말씀들에 순종하도록 교구 지도자들이 심방과 독려로 교구 가족들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천국일꾼 양성]을 위하여는 남성구역장을 활성화하여 준비된 영혼들을 말씀과 기도로 무장케 하고 지역과 세대와 직종의 특성에 따라 말씀의 교재를 나누며 건강한 천국일꾼으로 세우고 있습니다.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를 위하여 매주 교구모임 후 교구일꾼 중심으로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구 가족이지만 교구모임과 금요찬양집회에 불참해서 어색해진 지체들과 오랫동안 가슴에 품고 기도해온 대안자를 위한 총동원 전도초청집회(7월 15일 주일)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웃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천구기 예수님(요 15:15)처럼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는데 힘쓰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5대 목표를 믿음으로 지향하는 6교구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범으로 삼아 예수님께서 행동과 삶으로 가르치신 것들을 역시 행동과 삶으로 배우고 가르치며 훈련하고,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사랑하여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부단한 자기 부인과 겸손으로 주께 하듯 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영혼을 회복시키는 6교구가 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김규성(목회, 재교구장)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승리!

처음에는 이슬람국가라는 이유 때문에 무척이나 소심하게 행동하였습니 다.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기보다는 주변의 눈치 보기에 급급했습니다. 그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과 그분의 십자가를 전하지 못한 채 머뭇거렸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저를 깨뜨리셨습니다. 선교지에 오기 전까지의 영적 훈련이 제대로 잊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결국 주님은 주변의 눈치 보기에만 급급하여 복음 전하기를 머뭇거렸던 저의 마음에 “너를 이곳까지 보낸 것은 바로 나 하나님이다.”라는 말씀으로 가득 채워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직 성령님의 인도에 순종하면서 선교지의 불쌍한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어 달라는 기도의 일술을 열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의 발걸음을 산으로 뻗뻗하게 둘러싸인 오지로 인도하셨습니다.

만나 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특히 학생들의 하교시간에 맞추어 복음을 전하고 전도지를 주면서 찬양을 하나씩 노래했습니다. 그들에게 가까이 다가가니 성령님은 역사하셨고 어느새 학생들은 우리 곁으로 모여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눈은 복음에 대한 호기심으로 가득했고 우리는 그들의 마음에 예수님을 심었습니다. 이곳까지 오는 길이 쉽지 않았기에 걱정과 불안이 없지 않아 있었지만 복음을 영접하는 이들의 모습은 우리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했습니다. 처음에 영적 전쟁에서 약간 밀렸지만 결국 십자가의 능력으로 주님은 우리에게 이김을 주셨습니다. 복음의 씨앗이 뿌려진 선교지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가득하기를 계속 기도했습니다.

최정순(집사, 24교구 4팀)

선교 일기

“사도행전의 역사가 임하소서!”

1월4 자정이 넘어 속소에 도착했다. 무지 덥다! 피곤한 몸을 추스리며 선교지를 위해 기도한다. “우상과 어둠의 영으로 가득 찬 이 땅에 십자가 복음을 선포하여 영혼 구원을 위한 주님의 뜻을 이루는데, 신실한 도구가 되기를 소원하며 맡겨진 사역을 감사와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소서!” 아멘.

2월4 주님의 마음을 품고 준비된 선교를 하리라 시작했으나 마음만 급했다. 온 거리가 우상으로 덮여 있어 치열한 영적 전투를 실감하였다. 전하는 복음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음을 느끼고 안타까와서 마음이 무겁다.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는 것에 만족해야 하는가?” 주님께 더욱 간절히 기도한다.

3월4 복음을 전하였지만 여전히 그들은 마음의 문을 열지 않는 것 같았다. 영접기도를 하는 것도 시원치 않았다. 더군다나 문맹자가 매우 많았다. 그런데 더욱 심각한 것은 이같은 사탄과의 영적 전쟁에서 방심했던 나의 모습이었다. “아차!”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주님의 방법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는다.

4월4 복음을 전한 곳은 전형적인 도시의 뒷골목이었다. 도박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소란없는 눈빛을 보며 주님의 은혜가 임하시길 간절히 기도하였다. “어둠과 합당고 소외된 자들을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의 큰 사랑을 이들이 알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할까!”하며 더욱 믿음으로 복음을 전했다.

5월4 모여든 사람들과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한 후 인이주고 악수하며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네.”라고 복음을 전하니 환하게 웃으며 좋아했다. “복을 전하는 우리가 안이죄도 이렇게 좋아하는데 주님을 직접 체험하면 얼마나 좋아할까!” 귀로 들은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는 체험이 아이들에게 있기를 기도하였다.

6월4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으로 더욱 힘을 다하여 만나는 영혼마다 복음을 전했다. 현지인들 가운데 환자가 많았다. 우리들은 이들을 만날 때마다 먼저 복음을 전했다 이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다. “사도행전의 역사가 임하소서!”라는 날씨 때문에 헬함이 내려가는 교통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갔다.

7월4 오전사역은 영적으로 너무 힘들었다. 전하는 복음이 도로 떨어져 나오는 느낌을 받았다. 개도 열심히 찾아대고... 그럼에도 성령님은 우리를 감동하셨다. 누군가 꼭 해야 할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를 통해서 증거됨에 오히려 감사하였다. 오후 사역지에는 마을에 교회가 있었고 마을 전체가 아늑하고 사람들의 표정도 평안했다. 누군가 전했던 복음의 씨앗이 뿌리를 내려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고 구원의 은총이 임함에 감사! 감사!

황 향(권사, 14교구)

선교지에서 만난 아이

제가 선교에 동참한 것은 참으로 기적 같은 일입니다. 저는 평생 교회에 가 본적이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2005년 여름 남편과 함께 충현교회에 첫발을 디디면서 그동안 내가 살아왔던 인생이 얼마나 부질없고 하나님께 죄짓는 일인지 조금씩 느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세상 속에서 즐거움과 기쁨을 얻으려고 더 많은 죄를 짓고 영혼은 점점 더 황폐해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몇 달 전 어느 집사님의 권유로 참으로 우연히 아니 하나님의 예비하심 따라 24교구의 낮선 분들과 연합하여 선교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선교는 그저 막연히 생각했던 그런 여행이 아니었습니다. 내다 알고 있는 호텔, 내가 생각했던 식당과는 전혀 다른 그곳에서 우리는 잠자는 영혼들을 만났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섭씨 37.38도를 오르내리는 폭염 속에도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리며 믿음으로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초라한 이슬람 마을 한 귀퉁이에서 저는 한 아이를 만났습니다. 그 아이의 초롱초롱하고 깊은 눈동자 속에서 저는 천사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복받쳐 오르는 눈물을 미처 닦을 겨를도 없이 저 는 그 아이 손을 잡고 영접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영혼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눈물이 고여 있는 아이의 눈망울을 뒤로 하고 돌아오는 차 안에서조차 여전히 눈물은 그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예비하신 영혼을 통하여 천사를 만나는 은총을 제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조정민(성도, 1교구)

지난 주에 도착한 선교팀 (7개 팀)

기 간	팀	팀 장
6월 4일(월) - 6월 13일(수)	9 - 10교구 연합	김중홍
6월 5일(월) - 6월 13일(수)	22교구 - 24교구 연합	한홍연
6월 6일(수) - 6월 13일(수)	24교구	진학래
6월 6일(수) - 6월 14일(목)	24 - 16교구 연합	박재현
6월 6일(수) - 6월 14일(목)	24교구	정금수
6월 7일(목) - 6월 15일(금)	12 - 11교구 연합	심학인
6월 7일(목) - 6월 15일(금)	4 - 5 - 14교구 연합	박종운

현재 사역 중인 선교팀 (1개 팀)

기 간	평신도 단기선교사
4월 4일(수) - 6월 27일(토)	정영미 · 전해영 (예비대부)

이번 주에 출발하는 선교팀 (2개 팀)

기 간	팀	팀 장
6월 18일(월) - 6월 26일(화)	20 - 17 - 21교구 연합	권영주
6월 19일(화) - 6월 27일(수)	2 - 5교구 연합	박종철

창세기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듣는 내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인 되심을 다시 확인하였다. 노아와 맺은 하나님의 언약,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이삭과 에서와 야곱의 탄생을 배웠다. 특히 야곱에서의 요셉은 형통할 가운데서 죄없는 고난을 당했지만 관음의 지혜와 믿음으로 승리하였다. 모두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 예외적인 사람들을 사용하셨다는 놀라운 말씀에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를 재확인하는 좋은 기회가 되었음을 고백하며 감사한다. 특히 예수님도 이 세상에서 많은 고난을 겪으셨기에 고난 받는 종이라고 예언하고 있어 성경 전체가 하나로 연결되는 이 진리의 위대함을 다시 깊이 깨달았다.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 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다"(고후 4:16)

민병인(권사, 23교구)

수요일마다 누렸던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원하는 성도는 '누구나 수요일경공부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후반기 수요일경공부(9월 개강 예정)에도 많은 성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마태복음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제 나이 55세에 만난 예수님은 말씀을 통하여 제게 오셨 습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배척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이르게 한 바리새인, 사두개인,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악하고 교만한 모습이 지금의 내 모습과 너무나 흡사했습니다. 날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박는 삶이었습니다.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고난과 죽음을 이기고 승리를 얻기 위함이었습니 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죄사함의 완성을 이루셨고, 부활을 통하여 영생과 천국의 소망을 갖게 하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영혼구원에 대한 깊은 관심과 사랑으로 보혈의 은총을 전하는 영적인 전사의 삶을 살아야 함을 깨달았습니다. 선지자적인 방향을 바로잡는 총회교회에서 성령의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성도가 되어 마태복음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만나기를 바랍니다.

문경숙(권사, 16교구)

여호수아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여호수아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는 참으로 드라마틱하면서도 폭발적인 감동을 주었다. 신약 교회가 열원한 여호수아이신 우리 예수님을 좇아 이 세상에서 거룩한 싸움을 싸우는 군사로서 행군하다가 분명히 천국을 차지할 것을 예표해 주고 있다는 사실을 배웠다. 이 놀라운 은혜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며, 절대적 성결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였다.(계 22:20,21)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눅 18:8)라고 탄식하시던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자기를 부인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 오직 은총으로 온전할 믿음과 즉각적인 순종만이 있게 하옵소서," 아멘.

박태진(전수집사, 11교구)

사도행전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어부였던 베드로가, 신앙의 방향이 잘못되었던 사울이, 그리고 평신도인 스테반 집사가 죽기까지 믿음을 보여 주었던 일을 통하여 주님께서 허락한 이 땅에서의 시간은 영원이라는 시간 속의 경계에 지나지 않는데 우리 삶을 어떻게 살아야만 하는지, 성령님의 역사하심에 철저히 순종하는 삶은 어떠한 삶인지 깨달을 수 있었다. 그리고 말씀을 미처 깨닫지 못한 모습, 믿음의 연약했던 부분이 말씀으로 조영되어 한층 견고해지고 밝아지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앞으로 나의 삶 가운데서 나는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롬 8:26) 가운데, 주님께서 작정하신 그 길을 걷게 되는 신사도행전의 장을 열어가 는 순간 순간이 될 것을 기대하고 믿는다.

전승기(집사, 2교구)

권사수련회를 마치며

"낙타무릎의 어머니가 되게 하소서!"

수련회 당일, 권사님들은 정해진 시간보다 훨씬 전부터 갈릴리해를 가득 채웠고 모두 한 마음이 되었습니다. 정식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는 순간, 성령님은 저를 깨뜨리셨고 회개의 무릎을 꿇게 하셨습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비말을 깨닫고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유업에 후사가 되었음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세상 지식을 뛰어 넘는 참 사랑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얻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

권진희(권사, 16교구)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둠던 이방이 밝아오네"(창 248장) 주재찬송과 함께 올해도 기도하는 믿음의 어머니인 권사수련회가 소망 중에 시작되었습니다. 예배소서 강해와 기도의 특징을 통해 잠자던 우리의 영혼이 깨어났습니다. 이번 수련회를 통하여 복음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우리의 할 일은 오직 십자가를 전하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골 6:17) "낙타무릎의 어머니가 되게 하소서!" 아멘.

이혜자(권사, 24교구)

죄의 결정체 같았던 나

나는 십자가의 은혜로 주님을 만나 믿음의 길을 걷고 있다고 자부해 왔었다. 그러나 그것은 겉모양일 뿐 심층 깊은 내면에는 현장에서 건uhn다 잡힌 여인, 아니 수감자 우물가의 여인보다 더 음란하게, 썩어질 세상 것들을 사랑하고 섬기며, 자신의 의와 세상가치관, 자신의 지성, 편견에 갇혀 믿음으로 화합하지 못하며 예수님을 거부하며 십자가에 못 박는 유대인, 바리새인의 모습만 가득했다. 정말 죄의 결정체 같았던 나였다. 그러나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은 머리와 입술로는 예수님을 말하지만 삶은 어둠에 매몰되어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하는 죄인인 나를 만나주셨다.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한 자아와 욕망은 주님의 주위만 맴돌며 억지로 예수님을 세상 떠 죽는 임금 삼으려는 끝없는 자아의 방에 갇혀 주님 안에 거하지 못했던 나에게 월요일 새벽마다 요한복음의 말씀으로 친히 찾아오셨다. "나도 너를 죄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은, 채울 수 없는 이 세상의 기쁨이 아닌 버리고 내려놓는 기쁨, 자기부인의 기쁨을 들춰주셨다. 내 뜻이 아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깨닫게 하셨다. 그리고 주님을 향해 간구하게 하셨다. 나의 죄성으로 인해서 또 다시 탐욕과 욕망으로 가득한 방, 내 의지의 벽에 부딪혀 믿음의 날개를 접고 잠들지 않도록 간절히 기도하게 하셨다. "세상에서 늘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제 매순간마다 겸손히 무릎 꿇어 예수님 사랑, 영혼 사랑이 나의 존재와 삶의 목적이 되는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이 되기를 원하며 예수님만을 바라본다.

김은진(권사, 7교구)



교회 탐방 중등부 새가족

새생명 탄생의 기쁨

제1교육위원회의 새생명 전도주일(5.20)을 통하여 많은 청소년들이 예수님께로 나왔습니다. 교회 출석한 지 3주 정도 밖에 안 된 신임반 학생들을 만났습니다. 아직은 교회에 대하여 많이 낯설어하지만 큰 기대로 가득한 신임반 학생들을 보며 이들을 교회로 인도하신 주님의 손길을 느꼈습니다.

교회에 나오게 된 계기는?

- 학교로 찾아오신 교회선생님을 친구를 통해서 만났어요. 과자와 음료수를 먹으며 예수님 이야기를 듣고 교회에 나오기로 마음먹었지요. (최영식, 중등1부)
- 학원에서 만난 선생님이 함께 교회에 가자고 했어요. (장연애, 중등2부)
- 교회에 함께 다니고 싶다는 친구의 소원을 들어주었지요. (송재현, 중등2부)
- 성악레슨을 해주시는 선생님의 전도로 나왔어요. (박부름, 중등2부)
- 암미와 친구의 간절한 부탁 때문에 나왔어요. (조은애, 중등3부)
- "한 번 와 보라."는 친구의 말에 친구를 따라 왔어요. (박주승, 중등3부)

교회에 나온 느낌은?

- 좋아요. 찬송도 열심히 따라가고 있어요. (조은애)
- 오늘 처음 나왔는데 재미있을 것 같아요. 예배가 좋아요. (송재현)
- 아직은 별 느낌이 없는데 좋은 것 같아요. (최영식)
- 초등학교 때 조금 다닌 뒤로 처음이에요. 아침 7시부터 일어나서 준비하는 것도 괜찮아요. (장연애)
- 이전에도 교회에 다닌 적이 있는데, 그 때와는 완전히 다른 마음이 생겼어요. (박부름)

그동안 교회에서 배운 것은?

- 분반공부 시간을 통해서 마음을 배웠어요. (장연애)
- 예수님과 십자가에 대해서 소문이 많이 들어있어요. (박부름)
-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 이야기를 들었어요. (조은애)
- 좋은 선생님을 만나서 말씀을 재미있게 배우고 있어요. (최영식)



예수님은 누구신가요?

-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신 하나님이에요. (박부름)
-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세요. (조은애)
- 십자가에서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최영식)
- 구원주! 구세주! (장연애)

신임반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받은 은혜는?

- 학생들이 교회에 나온다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박부름 교사, 중등2부)
- 매주 목요일 오후 3시부터 학교로 찾아가서 30여명의 학생들을 고전적으로 만납니다. 많은 고민을 안고 있는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복음으로 위로하면서 오미라 제가 많이 위로받습니다. (강영희 교사, 중등1부)

-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혀 모르는 학생들에게 복음이 전해져서 그들이 변하는 모습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송정호 교사, 중등1부)

앞으로의 신앙의 다짐과 기도제목은?

- 빠지지 않고 교회에 나오겠습니다! (송재현)
- 꾸준히 교회에 다니면서 아바와 엄마도 정도 할 거예요. (최영식)
- 매주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도 열심히 할 거예요. (장연애)
-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서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로 주님의 일꾼이 되고 싶어요. 기도해 주세요. (박부름)
- 성경도 열심히 읽고, 공부할 거예요. (조은애)
- 아침에 일어나는 게 힘들어도 잘 다닐 겁니다. 친구와 함께! (박주승)
- 주일반 학원에 가야하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특히 부모님이 교회의 제직임에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배를 우선해 주십시오. (박용기 교사)
- 지난 새생명 전도주일 때, 태신자를 작정한 뒤 1:1로 돌보며 교회까지 인도하였습니다. 한 영혼을 향한 간절한 기도와 사랑이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였습니다. (송정호 교사)
- 학교에서 학생들을 만나다보면 교회에 나오고 싶어도 부모님의 반대로 나오지 못하는 학생들이 외로워 합니다. 이들을 위해서 꼭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강영희 교사)

오늘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교회에 나오는 것 자체를 힘들어 한 다. 그럼에도 "교회에 가서, 내 맘에 아무 거리낌 없이 따라왔다고 말하는 이들의 모습을 보며, 이들의 마음을 움직이셨던 예수님의 손길이 느껴졌다. 이들이 우리 교회에서 복음의 뿌리를 내려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기도하자."

(편집국)

수화 칼럼 ㉔ 주 기도문 1

"아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1. 하늘에



2. 계신



3. 우리



4. 아버지여



♡ 새 가족을 환영합니다 ♡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1098	박성숙	5	대학부	이신미(6)	1119	산나리	11	중등3부	손경희(9)
1099	김용기	21	청년2부	윤순규(3)	1120	산나리	11	중등1부	오정선(16)
1100	김정수	8	청년1부	김은실(7)	1121	김정은	1	청년1부	박재순(8)
1101	박성종	12	대학부	김영은(15)	1122	어퍼저	25	외선부	양순옥(12)
1102	정환숙	9	소망부	윤상철(22)	1123	강옥순	10	청년1부	최영지(24)
1103	강세옥	2	청년2부		1124	이승호	16	청년1부	김기중(8)
1104	권다영	8	대학부	박은지(7)	1125	서은희	17	청년1부	김남옥(1)
1105	밀란	25	외선부	한정현(14)	1126	오동현	5	청년2부	
1106	조준현	1	대학부	윤수정(1)	1127	손은숙	11	청년1부	장성길(16)
1107	여연	25	외선부	최정원(8)	1128	최소영	10	청년1부	박유미(10)
1108	이은혜	2	청년1부		1129	김엘리나	25	외선부	김엘리나(20)
1109	노승미	12	고등부	신한철(10)	1130	김호진	4	청년1부	정태동(4)
1110	구인희	18	청년3부	심호섭(10)	1131	송명진	25	에버다부	김정근(14)
1111	이선민	16	고등부	김영재(16)	1132	노진영	15	청년3부	이영순(15)
1112	박소현	1	청년1부	최미자(7)	1133	아루나	25	외선부	장용숙(21)
1113	조혜민	10	대학부	조현영(8)	1134	인크루트	25	외선부	장용숙(21)
1114	김선현	18	청년1부	이기욱(8)	1135	민태	25	외선부	장용숙(21)
1115	황안광	22	청년2부	김영필(22)	1136	별비	25	외선부	최규태(2)
1116	김영자	22	청년2부	이형숙(22)	1137	혜기	25	외선부	장용숙(21)
1117	김효선	22	청년2부	유기진(22)	1138	스비에파	25	외선부	한정현(14)
1118	성경옥	25	에버다부	노지은(10)	1139	최재혁	15	청년2부	안유현(15)

* 음향교회의 한 가족이 되기를 원하는 분은 본당 203호 새가족 등록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 [illegible]